

News

글로벌 중앙은행 4월까지 금리인상 릴레이 셈법 복잡해진 한은

머니S

미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7.3%... 198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준비 가능성 제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다음달부터 금리 인상 시작할 전망... ECB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들어갈 것 예상

5대은행 가계대출서 전세값 절반 넘어…부채 확대 '주범'

데일리안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대출, 작년에만 20조원 넘게 불어나며 130조원 육박... 1년간 늘어난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전세자금이 차지하며 가계부채 확대 주범 모양새
5대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총 129조 6,96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8.9% 증가... 전년대비 은행별 전세대출 보유량은 KB 20%, 신한 18.5%, 우리 34.6%, 하나 16.2% 증가

시중은행만 못한 인터넷은행 적금금리…‘메기효과’ 끝났나

CEO스코어데일리

은행연합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적금 상품 금리 최대 2%에 머물러... 6대 시중은행 상품 금리에 비해 0.7~2.0%p 낮은 수준

작년 하반기 처음으로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역전한데 이어 올 들어 시중은행이 금리 추가로 올리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에 ‘이원덕’…새 사령탑의 과제는

아시아투데이

이원덕 우리금융그룹 수석부회장,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으로 낙점... 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도, 디지털 전문성에 방점 찍었다는 후문

향후 우리금융의 증권 및 보험 인수합병을 위한 실탄 마련 책임감... 다음달 주주총회 이후부터 2년간 우리은행의 수장 맡을 예정

보험사도 메타버스 열풍에 가세

e대한경제

보험업계, 메타버스 열풍에 뛰어들어... 한화생명, 국내 보험업계 최초 메타버스 이용 영업교육 실시... 삼성생명, 메타버스 활용한 영업점 개점 노력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도 스타트업의 메타버스 기술 활용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보장,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 업그레이드 및 상품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예상

보험사 “車보험료 인하 없다… 적게 타면 깎아줄 것”

머니S

손보사들, 자동차보험료 2%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 제시하기로... 주행거리 비율별 환급받는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 제출 예정

손해율 낮추고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연간 1만km 이하 운행하는 가입자라면 연간 자동차보험료 17~32% 환급받을 수 있는 셈

증시 위축에 IPO 찬바람…증권사 실적 ‘긴장’

EBN

국내 증시 위축으로 IPO 시장에 찬바람... 브로커리지 부문이 증시 침체로 이익 하락 예상되는 만큼 IB부문에서 견조한 성과있어야 급격한 실적 악화 막을 수 있어...

1월 말 증시 급격한 하락 때문... 미국발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증시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 다만 대선 빅이벤트가 있어 분위기 반전 가능성도...

지난해 증권 계열사 간 ‘내부거래’ 확 늘었다…수익증권 거래는 반토막

CEO스코어데일리

증권사들, 작년 계열사간 내부거래 크게 늘려... 계열사간 거래로 시너지 창출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 내부거래, 2021년에 13건으로 대폭 확대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7건... 올해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8건의 계열사 간 거래 결정... 수익증권거래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출자 많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